

지상 법석

깨달음의 길 열려 있으니...

내 딸이라고 하는 상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의 아들, 아버지란 생각에 사로잡혀 아들, 부모로서의 참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정진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야 합니다. 대우주의 일들을 좀 더 넓게 쳐다보고 한 꺼풀 가려진 배후의 세계를 쳐다보려 노력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잘못된 저절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뜨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게 염불이고 기도요 화두선이고 독경의 생활이 됩니다. 이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나라고 하는 착각이 주춧돌이 되어 욕망, 분노등의 감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다스릴 때에 좀 더 대우주의 전체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망, 감정으로 치닫는 마음을 집중시켜 격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염불, 화두, 좌선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몸뚱이라는 결국 대우주와 한 덩어리인 까닭에 우리의 생활은 대우주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 몸을 가지고 대우주의 현상계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차원이 기도 염불 독경 화두의 생활에서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을 뜨고 살면 인간의 죄악 구렁

꿈없이 착하고 참된 마음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지워나가는 것이 불교인의 길입니다. 진리와 연결된 실천으로 끝없이 향상 되려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할 때 생과 사를 벗어나 대우주 속에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다. 꿈없이 착하고 참된 마음을 키워 잘못된 생각을 지워나가는 것이 불교인의 길입니다.

보살의 생활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진리와 연결된 실천으로 끝없이 향상 되려는 것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할 때 생과 사를 벗어나 대우주 속에 자유자재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이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참으며 부지런히 노력할 때 이루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어떤 율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메아리가 생기기 전에 거기 있습니

정 부중 불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나를 버리기 위해 부지런히 수행해 가면 '불생 불멸 불구 부정'한 나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온(五蘊)은 모든 잘못과 실수의 원천입니다. 망상의 분별을 일으키는 헛된 오온이 가져다 주는 결과의 무서움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길 알면 한없는 복덕이 함께 하지만 믿지 못하면 영원한 윤회의 사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세생생 거짓말에 속아 허우적거리면서 참된 것을 바라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양도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만질 수도 볼 수도 떨어버릴 수도

인과의 법칙은 한없이 고맙고 두려운 것입니다.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인과의 원리를 똑똑히 보고 똑똑히 믿어야 합니다. 대우주와 법계의 살림살이에는 묘한 도리와 이치가 있습니다. 인과의 원리를 알고 윤회를 벗어나는 일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자그마한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소홀이 해서는 안됩니다. 부지런히 경을 읽으며 참회하고 기도하며 내 공덕으로 타인을 위해 축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각(先覺)이 이끄는 대로 경건하게 배우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부처, 중생과 수많은 이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무의 '무(無)'는 아닙니다. 한 없는 공덕과 지옥 불이 함께하는 '무'입니다. 그런 무의 세계를 쳐다보며 소리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대우주의 살림살이는 인간의 재주와 지혜, 상식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도리와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건한 몸가짐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뇌가 없이 편안하다는 극락은 우리가 생각하듯 즐거움만이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구족(俱足)되어 있는 즐거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자꾸 원(願)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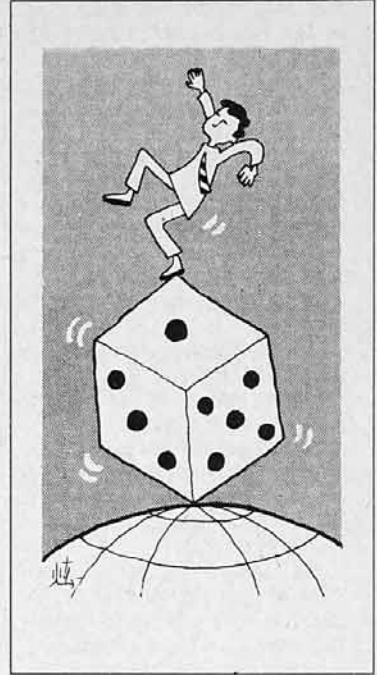
확률과 통계

김성규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가버린 젊음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자식도 클만큼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정신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생길 때이다.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혼자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된다.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아들 책상에 앉아 있노라면 간혹 엉뚱한 생각들이 스친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텐데. 몸에 살이 조금만 더 빠지면 정말 늘씬하고 좋았텐데. 그러다가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불현듯 까마득하게 있어버린 대학시절이 문득 참된 모습과 비집고 햇살처럼 다가온다. 그 때 같은 서늘에 있었던 자신을 죽으라고 따라다니던 그 남학생이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만약 그 남학생과 결혼하였다면 아들은 그 남학생을 닮아 공부도 잘 할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윤택하여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살텐데.

그러나 확률이란 얼핏 보면 불확정한 듯이 느껴지지만 거시적으로 말하면 99.9999%의 확실성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천만번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모습 밖에 다른 모습도 될 수 없으며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른 삶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확률이다. 스님은 죽다 깨어나도 스님일 뿐이며, 학자는 죽다 깨어나도 학자의 몸밖에 받을 것이 없으며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확률인 것이다. 중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1/6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4도 될 수 있고, 1/3도 될 수 있고, 1/2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주사위를 백번 던졌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거시적 인과와 미시적 인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인과는 불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시적 인과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과를 철저히 깨쳐 수 억겁동안 자신을 묶어매고 있는 윤회의 굴레를 확연하게 알고 나면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인과는 끊임없이



확률도 거시적으로 보면 주어진 길 현재 내모습 과거에 쌓은 업의 반영

던지더라도 1이 나올 확률은 1/6인 것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우주의 질서가 확률과 통계의 법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일어날 일만 있어왔으며, 인과에 어긋나는 것은 단 한 사건도 없었던 것이다. 인과가 분명하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지옥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화내는 마음에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아귀(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망을 내어 욕심스러운 마음에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아귀의 과보를 받는다), 축생(자신 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 하늘에 다다를 정도로 무거우면 축생의 과보를 받는다), 아수리(어리석은 마음이 가벼우면 아수리의 과보를 받는다), 인간(화내는 마음이 가벼우면 인간의 몸을 받는다), 천상(탑하는 마음이 가벼우면 천상의 과보를 받는다))은 없는 것이 아닌가? 46억년 전 지구가 처음 생길 때 인간도 같이 생겼던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다른 별에서 지구로 우주여행을 왔다가 지구가 마음에 들어 지구에 정착했다는 것인가? 지구에서 생명의 역사는 46억년 인데 인간의 역사는 백만년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인과는

변한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모진 상자 속에 입자가 하나만 들어 있을 때, 우리가 온도계의 눈금을 보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 입자는 좀처럼 온도계에는 충돌하지 않을 것이며 충돌하지 않으므로 온도계는 0도를 가리킬 것이며, 우연히 입자가 온도계에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그 속도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따라 온도계는 100도를 가리킬 것이다. 만약 입자가 온도계와 비스듬히 부딪힌다면 온도계의 눈금은 20도를 가리킬 것이다. 이와같이 입자의 수가 적을 때는 온도의 요동이 심하여 우리는 지금 몇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자 속에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들어 있다면 빠른 입자, 느린 입자, 비스듬히 충돌하는 입자, 충돌하지 않는 입자들 여러가지 입자들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온도계와 부딪칠 것이므로 온도계의 눈금은 정확하게 32도를 가리킬 것이다. 이것이 통계이며, 확률인 것이며, 자연현상도 우주의 흐름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이 바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억겁을 윤회하면서 자신의 아뢰야식 속에 축적되어 있는 수천억만개의 업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我相이 바로 이상... 잘못 과감히 고쳐야 인과 법칙 믿으며 이웃 축원하는 삶 살도록

텅이 빠지지 않고 대우주를 내 손아귀에 잡아놓고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말의 구속을 벗어나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는 차원이 우리 노력으로 이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착각을 물리치고 눈을 바로 뜨면 대우주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과 광영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으며, 착각이 모든 걸 가로막아 욕심 속에 허우적 거리면 갑갑한 어둠이 앞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바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속에 아득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正覺)가 이뤄집니다. 그건 바로 '아 내가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죠. 이 생각이 났을 때 격지 말고 유지에서 끝없이 고쳐려고 노력해야 합니

다. 법회에 참석하거나 독경소리를 들는 것은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소리가 아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 소리를 바로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른바 문(聞)·사(思)·수(修) 삼혜(三慧)의 시간입니다. '문혜'는 보고 듣고서 얻는 지혜이고, '사혜'는 마음으로 고찰해 얻는 지혜이며, '수혜'는 고찰을 마치고 입정(入定)한 뒤에 닦아서 얻는 지혜입니다. 또한 관세음(觀世音)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 있기 전의 진리의 세상 소리를 들으며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생 불멸 불구 부

없는 하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의 생활, 마하반야바라밀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원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자그마한 꽃, 감자, 수박 씨앗 한톨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만든 원인과 결과를 믿지 않는게 중생입니다.

작은일 소홀히 말라

많은 불서를 읽고 스님들을 만나고 절을 참배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을 깊이 느끼고 체할하지 않는다면 물에 뜬 거품을 만드는 꼴과 같습니다. 모양 있는 것, 말이 생긴 뒤에 나타나는 것을 진실인양 믿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만든 원인에 따라 복락과 칼날의 길이 갈라진다는 이치를 믿어야 합니다.

운 결과이지요. 고통과 상대되는 즐거움도 함께 떨어져 나간 세계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중생에게는 제일 무서운 것이 물질욕과 감정의 응어리입니다. 이 응어리가 떨어져 나간 세계가 바로 대열반의 세계입니다.

완전히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우리와 같이 살아도 생각 자체는 다릅니다. 사공 속에 놓인 물동아리에 구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와 진리를 깨친 맛은 도계를 열두번 씻은 맛과 같다고 합니다. 도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색 무취의 경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주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더 눈을 돌리자 감사의 생각을 일으킬 때, 가정과 사회가 화합된 극락이 펼쳐집니다.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브로엄·프린스·에스페로
씨어로·르망·티코·다마스·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 화: 249-3541 호출기: (012)207-3672
핸드폰: (011)216-3672 담당자: 강 양 구

生活 한자와 예쁜 글씨를 함께 배우는 每日漢文

매월 4,000원
일시불 값 10,000원
통신 주문제 실시

漢字를 모르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비결이 있습니다.
국어 사전 속에 漢字로 된 우리말이 70%
가정과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
3개월 코스!
주요내용: 명실보감 해설 / 고사성어 / 일반 상식 / 1일 1연(금연)

도서출판 한녜다비드
서울 특별시 중로구 송인동 201-7 미도 B/D307
전화: 직통) 783-6113, 253-6894-5
팩스: 785-1228, 253-6895